

# 서울시, 한강변·구릉지 등 유형별 도시경관 관리방안 고도화

### 개발-보존 공존 관리방안 모색 연내 심의 운영위 가이드라인 마련 내년 초 사전협의제 확대 운영 예정

서울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위해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체계적인 도시 경관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경관 심의 운영 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사전협의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도시 공간의 여건 변화로 경관 자원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서울은 급격한 사회·경제·환경적 변화에 직면했으며, 이에 대응해 경관 자원(한강·남산·역사자원)의 활용 가치가 증대, 경관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는 ‘경관 심의 내실화 계획’(2019년)의 ‘사전협의제’를 통해 서울 전역의 경관을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도시관리과의 사전협의 현황에 의하면, 안건 수는 2021년 215건에서 2022년 234건, 2023년 280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경관 심의 건수는 225건, 198건, 132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도시계획과 경관계획의 연계성 부족에 따른 일관된 도시 경관 관리

방향 부재 ▲경관계획 실행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경관 관리 기준 미비 ▲위원회별 경관 심의 통합 운영에 따른 경관 심의 실효성 한계를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보고 이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시는 체계적 도시 경관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선다. 시 도시 경관의 일관성을 확보해 서울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2040 경관계획’의 도시계획 측면을 보완할 예정이다. 도시·경관 관련 주요 기본계획(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서울 도심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경관 유형별(산·구릉지+수변+역사문화+시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존 조망점 분석을 통한 조망점 추가 및 삭제 검토해 조망점의 기본 원칙을 도출할 방침이다.

또 시는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경관 관리·실행 계획을 신규 수립한다. 서울 도시 경관 관리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자 지역별·경관 관리 요소별 세부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자치구·생활권 등 지역 단위의 경관 자원 조사·분석 및 경관 가치 재조명 ▲지역별 지속적인 경관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경관 현황도 제작(보전지역, 형성지역, 관리지역 등) ▲지구·구역별(경관지구·고도지구·중점경관 관리구역 등) 가이드라인 ▲경관구조별(경관축, 경관 자원거점 등) 지침 ▲조명경관 유형별(수

평조망·부감조망·파노라마조망 등) 가이드라인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시는 경관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수립하기로 했다. 사업 유형별 심의 절차, 관련법·기준 등 경관 심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화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경관 관리 지원 체계도 정비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정비위원회, 건축위원회 기존 4개 위원회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추가해 총 6개의 위원회를 가동한다.

정책 일관성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경관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 경관계획과 경관 관리 기능을 도시공간본부(도시관리과)로 업무 이관 조치해 경관 심의·개발 사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김경일 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 강력 차단”

### 민통선 주민 대상 이동시장실 운영

파주시는 지난 18일 장단면 일대 민통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동시장실을 열어, 최근 남북 접경지대에서 고조된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주민 피해 실태를 청취하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임진각 민방위대피소에서 열린 행사에는 조산리 대성동 마을, 백연리 통일촌, 동파리 해마루촌 등 민통선 마을 주민 3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성으로 인한 극심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불면증과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일 파주시장은 국정감사에서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를 알리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가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을 위한



파주시는 지난 18일 장단면 일대에서 이동시장실을 운영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주민 피해 실태를 청취하고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 /파주시

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한 출입금지 명령과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올해 수시지원자 44% ‘논술 전형’ 택했다

### 학생부·정시 대안으로 부상 상위권 대학 9곳 과반 이상 지원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 지원자 중 44%가 ‘논술전형’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 비중이 높은 학생부전형이나 수능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는 정시에서 합격에 기대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논술전형을 대안으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을 시행한 42개 대학에서 논술 전형 지원자는 51만 9365명으로, 수시 전체 지원자(117만 7898명)의 44.1%를 차지했다. 2025학년도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전국 42개 대학으로, 지역별 캠퍼스를 별도로 분리하면 50곳이다.

수시의 전형별 지원자 비율을 살펴보면,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는 30.6%, 학생부교과 전형 지원자는 15.6%에 그치며, 논술전형 지원자 수가 가장 높게 형성됐다.

논술전형을 시행하는 50곳의 수시모집 정원 중 논술전형의 비중은 20%로 1만 2210명에 불과하다. 이어 ▲학생부종합전형은 39.9% ▲학생부교과전형은 30.7% 순이다. 논술전형의 비중이 가장 낮은 데도 가장 많은 수험생이 쏠린 셈이다.

특히, 상위권 대학 9곳은 수시 지원자 과반수가 논술전형에 지원했다. 9개 대학의 수시 지원 인원은 38만 6401명으로, 이중 55.7%에 해당하는 21만 5385명이 논술전형으로 지원했다. 특히 ▲한국외대 69%(논술지원자 1만 5773명)

▲경희대 62.4%(2만 4049명) ▲중앙대 59.0%(3만 6119명) ▲서강대 58.9%(1만 5689명) ▲성균관대 58.0%(4만 1617명) 등의 논술 전형 지원 비중이 높았다. 이어 ▲이화여대 52.8%(1만 3450명) ▲연세대 52.5%(1만 7758명) ▲한양대 50.9%(2만 7509명) ▲고려대 45.0%(2만 3421명) 등의 논술전형 지원 비중도 높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교과전형은 학교 내신이 불리할 경우 처음부터 원서를 낼 수 없는 상황이며 학종 또한 내신 교과성적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수험생들은 학교 내신이 불리할 경우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유일한 통로가 논술전형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현진 기자 lhi@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46 | 해질 / 17:47

**10월 21일 (월)**  
음력 : 9월 19일

수도권 날씨 **10~20°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6/19, 동두천 7/19, 가평 5/18, 양평 8/18, 용인 11/19, 평택 10/20, 수원 11/19, 인천 11/20, 파주 7/18, 서울 10/20, 백령도 14/1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서울시, ‘병원안심동행서비스’ 4.5만건 돌파

### 서비스 만족도 90% 웃돌아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1월 첫선을 보인 ‘병원안심동행서비스’의 누적 이용 건수가 4만 5000건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이들이 병원을 오갈 때 매니저가 함께 하며 진료를 돕는 서비스다. 병원 이동은 물론 진료 접수, 수납, 약국까지 동행한다. 1인가구뿐만 아니라 노인 가구, 조손가정 등 가족 구성원의 도

움을 받기 힘든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시는 서비스 시행 3년 만에 누적 이용 건수가 4만 5000건을 넘어섰으며, 총 이용 시간은 15만 시간, 서비스 만족도는 90%를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시가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용자의 62%가 1인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이 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장년(21%), 청년(2%) 순이었다.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이용 모습. /서울시

서비스 만족도는 92.9%였다. 특히 ‘병원 이용에 실질적 도움(95.7%)’, ‘서비스 제공 시점 적절(94.6%)’, ‘매니저 친절(94.7%)’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김현정 기자

뉴스타파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우크라이나, 모스크바 서러시아에 대규모 드론 공격  
▲ 北쓰레기 풍선 20개 부양 철원에만 10여개 낙하 /사진 뉴시스



▲ 미 조지아주 사펠로섬 여객선착장 붕괴로 7명 사망  
▲ 英 외무 “분쟁 상호 연관에 한국과 안보 협력 강화 계획” /사진 뉴시스

▲ 허리케인 오스카, 바하마 근해에서 형성  
▲ 최상목, G20 APEC 재무장관회의의 참석